

24년 9월 퇴직연금 레터

뜨거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혹독한 더위였는데,
앞으로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과거 즐겁기만 했던 여름의 기억이
나이먹으면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여름이었습니다.

더위가 혹독했던만큼 3분기 주식시장,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도 꽤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쪽 일반 포트폴리오는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7월 중순이후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수익률의 상당폭을 반납하는 안타까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9월달에 들어 사실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의 대대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상반기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하던 반도체 ETF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항상 시장은 본질과 심리가 일치하지는 않는 곳이고, 그로 인해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동은 심리를 흔드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본질을 보면서
투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는 방법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말에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올려 드렸습니다.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은행 ETF : 10~25%
4. 증권 ETF : 10~20%
5. 건설 ETF 탐색 및 : 2.5~10%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24년 9월 퇴직연금 레터

먼저 **반도체 ETF**의 경우, 지난 7월말보다 한차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쌍바닥을 찍고 현재는 반등 중에 있습니다. 25년까지의 이익은 정해진 미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는 현재 주가 평가에 대한 환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대체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일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반도체 ETF는 34천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4만원선 내외에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행 ETF는 여전히 밸류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적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의 밸류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그 대상을 저희는 증권 ETF로 지목하였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영역은 소폭의 비중조절로 포트폴리오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평가를 바탕으로 24년도 9월에 제안을 드리는 IRP/ISA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은행 ETF** : 10~20%
4. **증권 ETF** : 10~25%
5. **건설 ETF** 탐색 및 : 2.5~5%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일반적인 제안 수준에서 각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로 주식시장은 매우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논쟁은 한국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멀게만 보이던 '**상법 개정**' 이슈도 마치 지평선 저 끝, 바로 너머까지 가까이 다가온 듯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4년 9월 퇴직연금 레터

기대로 시작했던 24년도 3분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성적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꾸준히 발전하고자, 계속되는 학습과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4분기가 시작됩니다.

가을의 수확처럼 좋은 결실을 맺는 이번 4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어, 대선 이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축은 우리를 좋은 목적지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레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시각으로
박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박상준 올림.